

우유니 소금사막

(볼리비아)



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, 마음이 없으면 달을 수 없는 곳 우유니 소금사막

우유니 소금사막은 건기와 우기로 구분된다. 우유니 소금사막의 모든 것이 말라가는 4월~1월 건기에는 사막의 바닥은 매우 딱딱하고 거칠며 6각형 소금 결정 모양의 새하얀 소금 사막이 된다. 12월~3월까지는 우기로 비가 내리면 하얀 소금사막 위로 20~30cm의 물이 차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 된다. 우유니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다. 볼리비아로 가는 직항은 없기 때문에 LA-리마(페루)-쿠스코(페루)-라파즈(볼리비아)-우유니(볼리비아)까지 총 다섯번의 비행을 해야만 우유니(Uyuni)에 도착할 수 있다.

<http://mtour.interpark.com/freeya/Discovery.aspx?seq=11573>

인터파크투어